

제22회 목포시의회 회의록

1. 일 시 : 단기4286(1953)년 9월 19일
 2. 장 소 : 의회 의사당
 3. 개회성립 :
 - 1) 참석의원:17명
유정두, 이소규, 임일남, 김남진, 이재홍, 김팔용, 박찬규, 김채용, 김영완, 오세일,
김자홍, 이문길, 정응표, 이복주, 김경희, 명남철, 진복춘 의원
 - 2) 불참의원:4명
문택호, 김길환, 김삼성, 김경현 의원
 4. 의사일정표 :
 - 1) 개 회 식(식순 생략)
 5. 보고사항 :
 - 1) 제21회 의회 회의록 통과
 - 2) 시공관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건
 6. 부의안건 :
 - 1) 대한청년단 목포시단부 단사수리비 의결 재의의 건
 - 2)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
 7. 폐회선언 :
 8. 토의사항 :
- ◇서기 박 찬 대
- 제21회 회의록 낭독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 없으면 통과하겠음

◎ 시공관 진상조사 결과보고의 건

◇총무과장 조 운 용

- 별지 조사와 여히 보고가 있었음 (생략)

◇이 소 규 의원

- 여하한 방법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유료 입장자가 180명인가?

◇총무과장 조 운 용

- 1일에 유료 입장자가 180명이라함은 과거 언론계에서 조사한 것을 참작한 것이다.

◇김 남 진 의원

- 작년도에 흥행세가 50만원이라 조사되어 있는데 실수입보다도 적게 조사가 되었다.

◇이 문 길 의원

- 입장료의 인상은 작년에 비하여 곤란한 문제임에 세입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가?

◇이 복 주 의원

- 앞으로 물가지수에 의하여 입장료 인상은 곤란하며, 또한 우천등으로 말미암아 연중 개관을 못한 일자가 허다함에 신중 검토를 바람

◇김 남 진 의원

- 행정부의 조사는 명확치 못하며, 또한 세금보다 수입이 적는데 이 중에는 업자의 비책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는 막연한 조사라고 생각된다.

◇의장 유 정 두

- 본 건에 대하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를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집행부에 일임할 것의 2개 방안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이 문 길 의원

- 본 건에 대하여서는 시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요함

◇시장 하 동 현

- 이 조사는 여러 사람이 기술적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이 이상 조사할 수 없으며, 조사결과로 보아서 시직영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의장 유 정 두

- 지난번 의회 때 결의와 같이 조사하여 책임있는 답변여하에 따라서 결의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자신이 없다는 답변이므로 다른 의사는 없는가?

◇김 남 진 의원

- 이것은 대전이나 전주의 시공관의 작년도 세입을 본다면 막대한 세입이며, 또한 적자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한다.

그리고 유리한 점은 동장, 반장, 유지 등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지시사항 등을 전달 할 수 있으며, 시민의 위안 영화 등을 상영하여 상의하달, 하의상달 등 모든 점으로 보아 시공관을 구입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음.

◇시장 하 동 현

- 대전이나 전주의 실례를 보아서 행정부에 일임하여 운영케 하다가 적자가 계속될 때에는 매도하여 다른 시유재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소 규 의원

- 대전이나 전주는 무료 입장자가 1일 평균 20명 내지 30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도 시공관으로 하게 되면 헌병대나 경찰서에 부탁하여서 무료 입장자를 적게 할 것과 이 기회에 시유재산을 정리하여 시공관을 구입 운영하되, 수지 균형이 우려됨에 운영위원을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5명으로써 구성할 것을 동의에 첨가 (동의자로부터 수락)

◇이 복 주 의원

- 1회 입장자를 180명으로 하면 1일 3회이니 540명인데 이는 계산에 불과하다.

우천이나 필름 도착 등으로써 계획 때 개관 안됨이 허다하므로 시영 주택을 매각하는 데는 찬성하나 시공관을 사지 말 것을 개의하다.

◇이 재 흥 의원

- 가격 여하는 물론이거니와 집행부의 조사에 의하여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결의는 너무나 지나치다.

◇이 소 규 의원

- 가격에 대하여서는 의원의 말에 의하면 2백만원 이하에도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진 복 춘 의원

- 운영위원 5명의 수고를 빌려 오늘 밤이라도 직접 극장에 가서 5일간 정도의 실지 조사할 것을 재개의

-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이 소 규 의원

-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야 함에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에 첨가(동의자 수락)

◇정 응 표 의원

- 시공관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적자는 없다고 한다.

들은 바에 의하면 대관만 하더라도 1개월에 3만원, 5만원 정도를 대관료로
준다하니 좀더 연기하여 성의있는 의원으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숫자를 조사
하여 다음 의회 때 토의할 것을 재개의에 참가 (참가수락)

- 재청에 이어 3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재개의에 가부를 묻겠음

가부 동수이므로 의장의 결정권에 의하여 가결

◎ 결의문 처리에 관한 건

◎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에 대하여 토의해 주기 바람

◇김 경 희 의원

- 본건 등은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전원 가결

◎ 대한청년단 목포시단부 단사수리비 의결 재의의 건

◇의장 유 정 두

- 본 건 토의를 바람

◇진 복 춘 의원

- 8월 25일 제19회 의회 때 본 의원의 동의로써 대한청년단 목포 시단부

단사수리비 징수에 대한 동의의 발언은 의회에서 논의된 문제가 아니므로 폐기할 것을 번안동의함과 동시에, 의결일자부터 오늘까지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전부 개인에게 반환하도록 번안동의합니다.

- 재청, 3청, 4청, 5청, 6청, 7청까지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음. 전원 가결
- 회의록 서명에 명남철, 임일남 의원을 지명

7. 산회선언

- 의장 유 정 두 (오후 2시 30분)

위 회의록을 확인하고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4286(1953)년 9월 19일

의장 : 유 정 두

의원 : 명 남 철

” : 임 일 남

작성자 서기 : 양 판 남

제22회 목포시의회 속기록

◇서기 박 찬 대

- 제21회 회의록을 낭독하였음

◇의장 유 정 두

-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음. 전원 통과

◎ 시영공관 조사결과 보고의 건

◇총무과장 조 운 용

- 별지 조사서와 여히 보고가 있었음

◇이 소 규 의원

- 방금 조사 보고를 들어 본다면 여하한 방법으로써 조사하였기 때문에 1일에 유료 입장자가 180명으로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 운 용

- 1일에 유료 입장자가 180명에 불과하다 함은 과거 언론계에서 조사한 것을 짐작한 것입니다.

◇김 남 진 의원

- 작년도에 흥행세가 5천만원인데 조사 내용에 의하면 총수입보다도 적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 길 의원

- 입장료 인상은 작년도에 비하여 곤란한 문제임에 세입조사를 여하히 하였습니까?

◇이 복 주 의원

- 앞으로는 가격도 인상될 모양인데 영화 등의 입장료의 인상은 곤란하며, 또는 우천 등으로 말미암아 계획대로 개관도 못하는 일자가 연중 허다함에

신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남 진 의원

-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본다면 출입 인원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행정부의 조사는 명확치 못함에 작년도의 세입보다도 조사서에 의하면 세금이 더 많으므로 이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업자의 배책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런 조사는 막연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유 정 두

-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조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할 것인가?
그것을 기초로 본다면 초년도에는 적자가 나면 5년이 넘어야만 흑자 정도를 조사가 되어지니 이것을 집행부에 일임하여 일반 운영케 할 것인가에 두가지 방도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 길 의원

- 이 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시장 하 동 현

- 이 조사서는 여러 사람이 조사한 결과이며, 기술적으로 검토하였으니 이 이상 더 조사할 수 없으며, 이런 점으로 보아서 시직영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장 유 정 두

- 지난번 의회 때에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책임있는 답변 여하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인데 지금 시장님의 답변은 자신이 없다는 답변임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 남 진 의원

-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타지방까지 가서 본 결과를 본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신이 없고 적자의 실정인데 내가 가본 전주만 하더라도 작년도 수입이 1억 5천만원, 대전에서도 실수입이 8천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산서가지 가지고 온 사실이 있으며, 전주나 대전보다도 우리 목포가 입장자의 율이 많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의 조사는 막연함에 재조사를 함이 타당타 생각되어, 시공관이 있으므로써 여러 각도로 좋다는 점은 시에 서나 기타 지시 기관에서 동일한 장소에 동회장, 반장을 집합시켜 당국으로부터 지시 사항을 전달하며, 때로는 시민을 모아놓고 시민의 위로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하는 점과, 또는 반장들이 돌아가서 동민에게 선전을 잘하면 입장자가 많음에 세입면에도 커다란 도움이 되므로 이런 점으로 보아서 구입할 것을 재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유 재산을 매각하여서 시공관을 구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 3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지금 또다시 재조사는 곤란하오니 대전이나 전주의 실례를 보아 운영여하에 의하여 적자가 없다면 집행부에 일임하여 운영토록 할 것인가, 또한 일단 구입하여 운영하다가 적자가 계속되면 매도하여 다른 시유재산을 구입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동의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행정부에서 조사한 결과보고를 본다면 손해가 난다고 하는데 대전이나 전주에는 1일에 무료 입장자가 20명이나 30명에 불과하고 그 외는 전부가 유료 입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시의 목포극장 입장료를 본다면 우수한 영화 등은 백환이라는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무료 입장자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시공관으로써 운영하게 되면 헌병대나 경찰서에 부탁하여서 무료 입장자를 없게 할 것이며, 이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여서 시공관을 구입하여 운영하되 만일의 손해가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름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서 1년 정조의 운영 결과에 의하여 참으로 적자가 난다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음에 운영위원은 김자홍 의원, 오세일 의원, 김경희 의원, 김남진 의원, 임일남 의

원 5명으로 구성하여 시영주택을 처리하고 시공관을 구입할 것을 동의에 첨가합니다.(동의자 수락)

◇박 찬 규 의원

- 행정부에서의 조사 보고를 본다면 1일 평균 입장자를 180명으로 보고 입장료를 인하하여서 계산한 모양인데, 만일 시공관으로 하게 되면 입장료를 인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근본 동의는 시공관으로써 운영하게 되면 시민에게 입장료를 싸게해서 시민을 위안시킨다는 의도였는데 행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동의를 곧 취소하고 싶습니다.

최근의 흥행의 문제를 본다면 1일 3회씩을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1회로 조사가 되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사 검토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복 주 의원

- 오랜 시일이 걸려서 오늘 토의된 것입니다. 그래서 흥행의 횟수 1회에 대해 입장료를 180명씩으로 보고 3회를 하게 되면 540명이 되는데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영시 비가 온다든지 또는 의 형편에 의하여 필의 숫자를 본다면 180명이 못 됩니다. 모든 조사가 막연합니다.

그러나 시영 주택을 처분한다는 것은 찬성하고 이 자리에서 표결을 요하며 시공관을 사지말 것을 개의합니다.

◇이 재 흥 의원

- 가격이 백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사기만 할 것인지, 또는 행정부의 조사 결과 보고를 본다면 적자가 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오늘 이자리에서 표결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가격에 대하여서는 이소규 의원의 말에 의하면 2백만원 이하에도 될 수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문 길 의원

-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 적자가 난다는데도 살 것인지 의문입니다.

◇진 복 춘 의원

- 집행부의 조사에 적자가 난다 하므로 본 의원은 운영위원 8명에게 며칠만 수고하여 주십사 하고 오늘 저녁부터 직접 극장에 들어가 일자는 5일 정도로 하여 실지 입장자의 유료나 무료가 어느 정도의 율이 되는지 조사하여 운영위원의 의견을 듣고 가결할 것을 재개의합니다.

- 재청이 없으므로 폐기

◇이 복 주 의원

- 직접 입장의 상황을 조사함도 좋으나 1년, 2년 할 것을 2, 3일에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는 상영시 불의의 변동이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여 주십시오.

◇명 남 철 의원

-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는데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시장 하 동 현

- 시영주택을 팔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정 응 표 의원

- 총무과장 보고는 180명이라 하였는데 휴전 후에는 1일 3회씩을 상영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1801명입니까? 아니면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 운 용

- 현재 조사서는 과거를 말한 것입니다.

◇의장 유 정 두

- 본건에 대하여서는 동의도 재청이 있었고 재개의도 재청이 있었으므로 모두 다 성안이 되었습니다.

◇명 남 철 의원

-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당 도선장 같은 좋은 사업장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데 이 문제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일 남 의원

- 시유재산을 처분하고 사업장을 구입할 것을 재개의에 첨가합니다.

◇이 소 규 의원

- 문제의 가부를 빨리 정합시다.

표결로 정하되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에 첨가합니다. (첨가자 수락)

◇정 응 표 의원

- 시공관으로 하게 되면 절대로 적자나 손해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듣는 바에 의하면 1개월에 3백만원이나 5백만원을 지불할테니 빌려 주라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좀더 연기해서 다음 의회까지 성의있는 의원으로 하여금 기술적으로 숫자를 조사하여 토의할 것을 재개의에 첨가합니다. (재청, 3청)

◇의장 유 정 두

- 재개의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9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서기 박 찬 대

- 건의문의 낭독이 있었습니다.

◇의장 유 정 두

- 건의서에 대한 토론을 바랍니다.

◇김 경 희 의원

-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문교사회분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다음 의회에 상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재청이 있었음.

◇의장 유 정 두

- 가부를 묻겠습니다.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 대한청년단 목포시단사 수리비의 건

◇진 복 춘 의원

- 8월 25일 제19회 의회 때 본 의원이 동의로써 대한청년단 목포시단부 단사수리비 징수에 대한 동의의 발언은 의회세 논의될 문제가 아니므로 폐기할 것을 번안동의함과 동시에 의결후 오늘까지 징수한 금액에 대하여서는 전부 개인에게 반환하도록 번안동의합니다.

- 재청, 3청, 4청, 5청, 6청, 7청까지 있었으므로 성안

◇의장 유 정 두

- 번안동의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 재석의원 16명 전원 가결되었습니다.

◇ 폐회선언

- 의장 유 정 두

(오후 2시 30분)